

#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

- 정영식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 
신남방경제실장  
ysjeong@kiep.go.kr, 044-414-1141
- 김정곤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 
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 
jgkim@kiep.go.kr, 044-414-1093
- 한형민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 
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 
hmhan@kiep.go.kr, 044-414-1230
- 정재완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 
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 
jwcheong@kiep.go.kr, 044-414-1051
- 김제국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 
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 
jegook@kiep.go.kr, 044-414-1039
- 이정미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 
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 
leejm@kiep.go.kr, 044-414-1252
- 윤지현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 
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 
chyun@kiep.go.kr, 044-414-1327



## 차 례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2. 조사 및 분석 결과
3. 정책 제언

## 주요 내용

- ▶ 한국은 신남방지역(아세안과 인도)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졌으나, 최근 신남방지역의 대내외 환경 변화로 한국의 對신남방 교역이 둔화되고 있어 이들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모색이 절실
- ▶ 이를 위해 신남방지역 가치사슬(GVC: Global Value Chain)구조, GVC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, 한국기업의 GVC 구축현황, 일본의 GVC 구축사례 등을 분석
  - GVC구조 분석 결과, 신남방지역은 ① RCEP, NAFTA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 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②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증가 ③ 아세안 역내 또는 아세안과 인도 간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 ④ 가치사슬(중간재와 재수출) 거점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, 인도,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 ⑤ 한국의 경우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·최종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참여도가 높고, 한국 수출 중 한국 내부 부가가치가 많은 신남방 국가는 베트남, 싱가포르, 인도, 인도네시아
  - 한국 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은 ① 아세안(베트남, 인도네시아)의 경우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·기술력 부족, 물류인프라 부족, 부품 부재·다양성 부족,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, 인재 확보·양성 곤란 순이고 ② 인도의 경우 낮은 기술 수준·비즈니스 문화 차이·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부족 등 현지 기업과의 협업 어려움, 열악한 인프라, 인도 내 제조 확대를 위한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조사됨.
- ▶ GVC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제시
  -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① 신남방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·GVC를 지속 확대하고 ② 거점국가 다변화, GVC 고도화와 차별화,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고 ③ 한국의 비교우위와 현지 유망산업을 고려한 유망협력 분야를 중점 지원
  - 두 가지 유형의 정책과제로는 ① 현지 인프라 및 기술인력 기반 개선(△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현지 인프라·산업단지 투자 확대, 기술인력 육성 △현지 GVC 재구축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)과 ② 현지 협력 환경개선(△FTA 체결 확대 및 개정 △공동이니셔티브 추진 △한-아세안 협의체 강화)을 제시

## 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아세안(ASEAN)과 인도는 거대한 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, 한국은 잠재력이 높은 이 지역들과의 경제협력수준을 크게 높임.
  - 13억 명의 거대시장을 가진 인도는 2014년에 이미 중국 경제성장률을 넘어섰고, 아세안의 경우에도 6억 5,000만 명 인구에 성장률도 중국 경제성장률에 근접함.
  -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하는 신남방지역은 한국의 2대 교역파트너이자 2대 투자대상지역임.
    - 한국정부는 아세안과 인도에 초점을 둔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이며, 2020년까지 한·아세안 교역을 2,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, 2030년까지 한·인도 교역액을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.
    - 한·아세안 교역규모는 2016년 1,188억 달러에서 2018년 1,597억 달러로 급증하였고, 한·인도 교역규모도 같은 기간 158억 달러에서 21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.

표 1.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(2019년 1~7월)

(단위: 십억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금액	비중
1	중국	140.6	22.9
<b>2</b>	<b>아세안</b>	<b>88.1</b>	<b>14.4</b>
3	미국	79.3	12.9
4	EU	64.5	10.5
5	일본	45.3	7.4
6	홍콩	20.1	3.3
7	대만	17.7	2.9
8	호주	16.4	2.7
9	독일	16.3	2.7
10	사우디아라비아	15.2	2.5
<b>12</b>	<b>인도</b>	<b>12.6</b>	<b>2.1</b>
	기타	97.1	15.8
	합계	613.2	100.0

자료: IMF DOTS(검색일: 2019. 11. 24).

표 2.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(2019년 1~6월)

(단위: 십억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금액	비중
1	미국	7.1	23.5
<b>2</b>	<b>아세안</b>	<b>4.3</b>	<b>14.3</b>
3	중국	3.8	12.6
4	케이맨군도	3.7	12.4
5	홍콩	1.9	6.2
6	저지	1.1	3.7
7	룩셈부르크	0.9	2.9
8	캐나다	0.8	2.7
9	영국	0.8	2.5
10	폴란드	0.7	2.3
<b>21</b>	<b>인도</b>	<b>0.2</b>	<b>0.6</b>
	기타	4.9	16.2
	합계	30.0	100.0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, 해외직접투자동계(검색일: 2019. 11. 11).

- 최근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·내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국의 對신남방지역 교역이 줄어들고 있으므로,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를 위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함.
  -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신남방지역에서의 경쟁 격화, 생산비용 증가, 현지 부품조달비용 확대 및 기술이전 중시정책,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이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변화됨.
  - 따라서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(GVC: Global Value Chain<sup>1)</sup>) 구조, 아세안과 인도의 GVC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,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,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.

## 2. 조사 및 분석 결과

### 1)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가치사슬구조 분석

#### ① 분석에 사용된 국제산업연관표와 방법론

- ADB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출에 내재된 부가가치를 국내 또는 해외 부가가치 등 여러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GVC 구조를 파악함.
  - ADB-MRIO 국제산업연관표는 다른 국제산업연관표 대비 신남방국가 대부분을 포함(미얀마 제외 10개국)하고, 세분화된 산업분류와 함께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장점을 가짐.
-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국가간·산업간 GVC 구조를 파악함.
  - Wang, Wei and Zhu(2013)의 방식을 사용하여 총수출은 크게 국내 부가가치(DVA: Domestic Value-Added), 환류된 국내 부가가치(RDV: Returned Domestic Value-Added), 해외 부가가치(FVA: Foreign Value-Added), 중복계산(PDC: Pure Double Counted Terms)으로 나눌 수 있으며, 총 16개의 자세한 분해항목을 통하여 GVC 구조를 파악함.

#### ② 신남방지역 가치사슬구조의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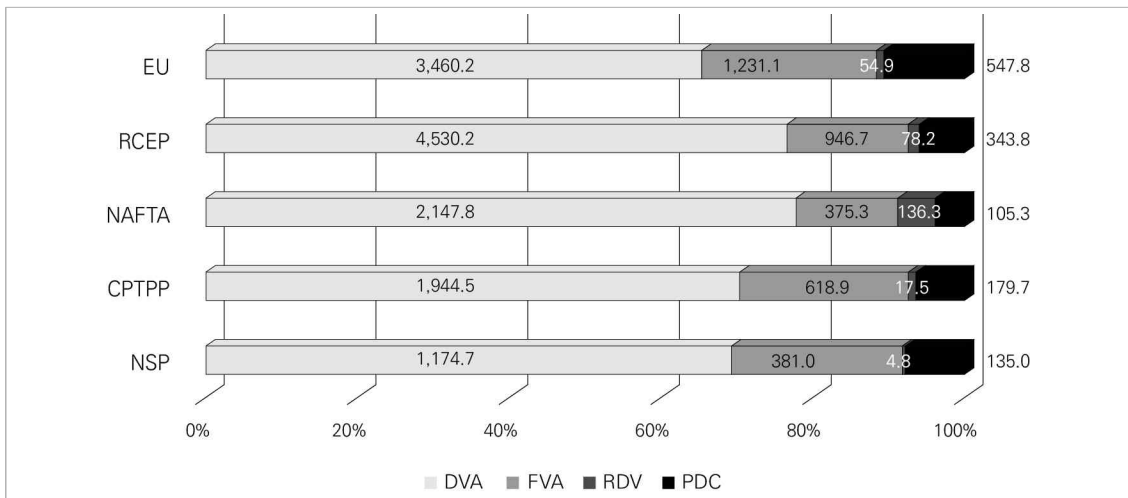
- 신남방지역의 GVC 참여도는 2017년 기준 46.3%로 다른 지역(RCEP 39%, NAFTA 38% 등)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고, 신남방지역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(DVA) 비중이 상승함.

1) 글로벌 가치사슬은 한 상품의 전 생산 및 판매 공정(제품 디자인, 원자재 및 부품조달, 조립생산, 유통, 애프터서비스)이 한 국가 안에서 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유리한 여러 국가로 나누어져 진행되는 것을 의미. 예를 들어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를 수입하고, 한국에서 디자인과 핵심부품 및 반제품 생산을 담당하고,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해 베트남 현지에서 휴대폰 완제품을 만든다. 이 완제품은 다시 미국, 한국 등에 수출되거나 현지 국가에 소비된다.

- 신남방지역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(DVA) 비중은 2007년 63.7%에서 2017년 69.3%로 소폭 상승한 반면, 해외 부가가치(FVA) 비중은 같은 기간 25.2%에서 22.5%로 소폭 하락함.
  - 국내 부가가치(DVA)는 개별국의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중 국내로부터 조달받은 생산상품과 서비스 중간재의 부가가치를 의미함.
- 신남방지역의 중복계산(PDC) 수출 비중은 EU 다음으로 높아 다른 지역 경제공동체 대비 글로벌 분업화가 활발한 편임.
  - 수출국과 중간재의 반복적 이동을 의미하는 중복계산 비중은 글로벌 분업화 정도를 나타냄.

그림 1. 주요 지역 경제공동체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(2017년)

(단위: 십억 달러, %)



- 신남방지역 내 중간재와 재수출 가치사슬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, 인도,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었고, 신남방지역의 수출상품과 GVC 이용방식이 고도화됨.
  - 신남방지역 내 중간재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태국에서 인도네시아, 인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으로 다변화됨.
    - 인도네시아는 브루나이와 태국에서, 인도는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에서, 베트남은 캄보디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로부터 역내 중간재를 조달함(2017년 기준).
  - 신남방지역 내 재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던 국가는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태국에서 인도네시아, 인도, 베트남으로 변화됨.
    - 브루나이와 태국은 주로 인도네시아를 재수출 경로로 사용하고 있으며, 인도는 브루나이를, 캄보디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태국 등은 베트남을 주로 제3국 수출에 이용함(2017년 기준).

● 한국의 GVC 참여도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위치도 상승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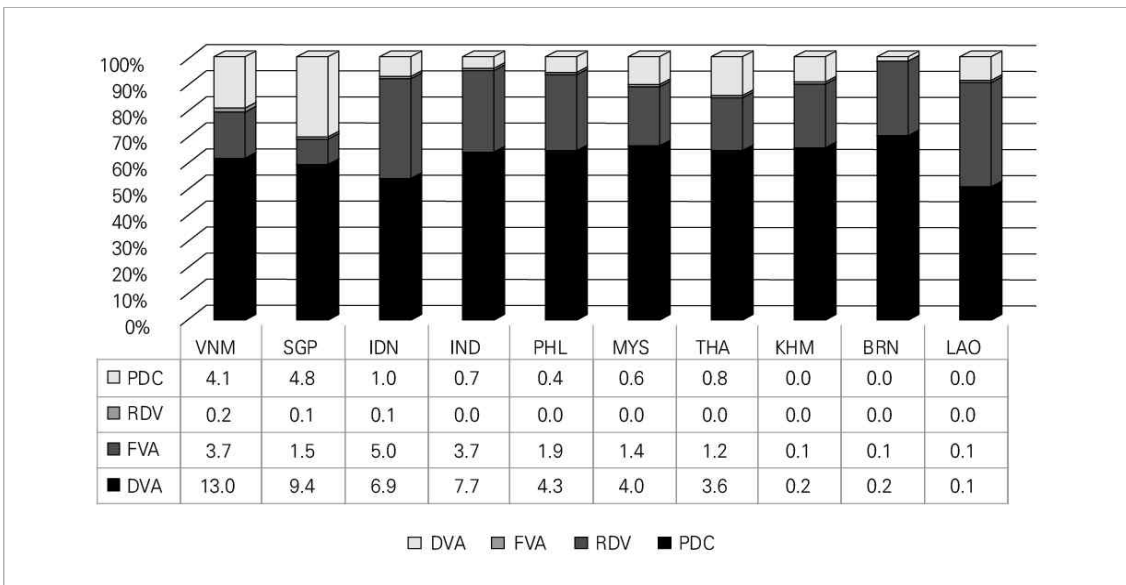
- 한국의 GVC 참여도는 2007년 44.9%에서 2017년 52%로 증가함.
  - 한국 수출상품에 내재된 해외 부가가치 이용 비중이 높으므로 한국의 후방 참여도는 전방 참여도보다 높음.
- 한국의 GVC 위치도 개선되어(2007년 37.6% → 2017년 41.6%) GVC가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함.
  - 가치사슬 위치는 수직 특화(VS) 정도 대비 중간재 수출에서의 해외 부가가치(FVA\_INT) 비중으로 계산되며, 단순조립가공을 통한 최종재 수출이 아닌 중간재 수출은 수입국 상품 생산 전방에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가 높음.

● 신남방지역 국가 중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, 싱가포르, 인도, 인도네시아이고,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분업관계가 높음.

- 한국의 베트남과 싱가포르 수출에 포함된 중복계산 수출(PDC) 비중은 높고, 한국의 인도와 인도네시아 수출에 포함된 중복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음.

그림 2. 한국의 신남방지역 수출 부가가치 분해(2017년)

(단위: 십억 달러, %)



주: 1)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수출규모 순 배열.

2) DVA=총수출 국내 부가가치 기여분, FVA=총수출 해외 부가가치 기여분, RDV= 총수출 환류된 국내 부가가치, PDC= 총수출 중복계산분.

3) BRN(브루나이), IDN(인도네시아), IND(인도), KHM(캄보디아), LAO(라오스), MYS(말레이시아), PHL(필리핀), SGP(싱가포르), THA(태국), VNM(베트남).

자료: ADB-MRIO(2017)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.

## 2) 국별 산업 및 잠재 협력기회

### ① 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(RCA) 및 분석 방법

- 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는 무역통계의 중복계산분을 제외한 순수 부가가치 수출을 바탕으로 산출되며, 특정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됨.
  - GVC를 이용한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무역통계에는 여러 국가의 국경을 반복적으로 거쳐 중복으로 계산된 값이 포함되는 바, 이를 이용하여 비교우위를 분석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.
    - 특정 국가의 총부가가치 수출 대비 특정 국가산업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전 세계 총부가가치 수출 대비 특정 산업의 전 세계 부가가치 수출 비중보다 큰 경우, 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를 가짐.
  - 이와 함께 신남방국가 산업의 GVC 참여도 또는 국제분업화를 국별, 산업별로 확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협력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음.

### ② 한국의 수출경쟁력과 신남방지역 국별·산업별 협력기회

- 한국은 제조업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필리핀, 인도와의 협력기회가 있음.
  - 한국은 주요국 대비 농업, 광업, 서비스업에서 비교열위를 보이지만 석유정제, 화학, 전자부품,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짐.
  -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은 석유정제산업, 베트남은 화학산업,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산업,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산업에서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잠재 협력기회가 존재함.

표 3.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및 가치사슬에 기초한 잠재 협력기회

	석유정제	화학	전자부품	자동차 운송장비
베트남	○	○	○	
태국	○			○
싱가포르	○			
필리핀			○	
인도				○

자료: 저자 작성.



### 3)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

#### ① GVC 관련 주요 정책

- 대외지향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신남방국가들은 전통적으로 GVC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치 활성화와 수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.
  - 특히 신남방국가들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, 이는 신남방지역의 활발한 GVC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.
    - 아세안이 추진한 역외국과의 FTA(ASEAN+1 FTA)에는 한국, 중국, 일본, 인도, 호주·뉴질랜드, 홍콩이 있으며, 대부분의 개별국(미얀마 등 일부 제외)은 양자간 FTA 체결 또한 적극적임.
    - 인도는 모디 정부 이후 FTA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강조하여 추가적인 FTA 체결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, 2000년대 한국, 일본, 태국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아세안 등과 양자 및 다자간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함.
  - 아세안의 경우 역내시장 통합을 위해 역내 인프라(hardware+software)와 연계성 개선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역내 생산 및 분업 체제를 구축하면서 동아시아의 중요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(GPN)의 한 축을 형성함.
- 신남방국가들은 산업화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산업육성전략을 수립·시행하고 있으며, 이 또한 GVC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.

표 4.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최근 주요 산업육성전략

국가	주요 산업육성전략	국가	주요 산업육성전략
인도네시아	-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~35 - Making Indonesia 4.0 - 이슬람경제마스터플랜 2019~24	태국	- Thailand 4.0 - 동부경제회랑(EEC)
말레이시아	-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 중기검토보고서 2016~20 - 할랄산업마스터플랜 2008~20 - Industry 4WRD	베트남	- 2025년 산업발전전략과 2035년 비전 - 지원산업육성 프로그램 2016~25 - 2025년 자동차 산업발전전략과 2035년 비전
미얀마	- 지속가능개발계획 2018~30 - 농업개발전략 - 국가수출전략 2015~19	인도	- 메이크 인 인디아 · 세부 산업별 발전전략 · 단계적 제조프로그램(자동차, 모바일) - 스킬 인디아 - 디지털 인디아
필리핀	- 포용적 혁신산업전략(³S) - 자동차산업부활전략		

자료: 저자 작성.



## ② GVC 관련 산업별 수요

● 신남방지역 주요국(인구 3,000만 명 이상)의 최근 10년간 흐름을 바탕으로 파악한 성장유망산업은 [표 5]와 같음.

- 특히 식품 관련 산업은 신남방지역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5대 핵심산업이자 고성장 예상산업으로 꼽힘.

표 5.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성장 유망산업(제조업 중심)

국가	5대 핵심산업 <sup>1)</sup>	고성장 예상산업(중·단기) <sup>2)</sup>
인도네시아	① 식음료 ② 석탄, 석유정제 ③ 수송장비 ④ 금속가공, 컴퓨터, 전자제품 등 ⑤ 화학, 의약품	식음료(할랄 포함) / 자동차 관련 산업 / 화학 / 기초금속 / 금속가공 / 컴퓨터, 전자제품
말레이시아	① 전자부품, 통신장비, 소비자가전 등 ② 정유 ③ 화학, 의약품 ④ 자동차 및 수송장비 ⑤ 식음료	전자 및 통신부품 / 자동차 및 수송장비 / 비금속광물 / 금속가공 / 식음료(할랄 포함)
미얀마	※ 제조업 데이터 부재	식음료 / 의류 / 건설 및 건축 자재 / 소비자가전 / 목재 및 목제품
필리핀	① 식품가공 ② 화학 및 화학제품 ③ 라디오, TV, 통신장비 및 기구 ④ 정유 및 연료 ⑤ 담배	식음료 / 화학 및 화학제품 / 건설 및 건축자재 / 자동차·부품
태국	① 식음료 ② 코크스 및 정유제품 ③ 화학 및 의약품 ④ 컴퓨터, 전자 및 광학제품 ⑤ 자동차	정유 / 화학 / 고무 및 플라스틱 / 자동차 관련 산업 / 식음료 / 기계 및 장비업
베트남	① 식음료, 담배 ② 섬유, 의류, 가죽 ③ 컴퓨터, 오피스 및 통신장비 ④ 가전제품 ⑤ 기초금속	기초금속 / 비금속광물 / 목재 및 목제품 / 고무 및 플라스틱 / 자동차·부품 / 통신장비 / 식음료 / 섬유, 의류, 가죽
인도	① 석유정제제품 ② 화학 및 화학제품 ③ 기초금속 ④ 식품가공 ⑤ 제약	식품가공 / 화학 및 화학제품 / 제약 / 고무 및 플라스틱 / 기계 및 장비 / 자동차·부품 / 전자

주: 1) 가장 최근 제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업종 중심.

2) 해당국의 경제 및 산업 특성, 정부의 육성전략, 최근 성장추이 등을 토대로 추출한 것으로, 해당국의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을 의미.

자료: 저자 작성.

## 4)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

### ①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

● 아세안에서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전기전자, 자동차·기계, 섬유·의류 업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GVC 구축 현황을 파악

● 주요 특징의 경우 원재료·부품 조달은 본국(한국)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하게 조달하나 업종 및 진출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.

- 전기전자는 동일회사/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조달하는 데 반해, 자동차·기계는 현지에서

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조달

- 섬유·의류는 진출한 국가별로 달리 나타났는데, 베트남 진출기업은 한국과 현지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가장 많이 조달하나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조달

● 현지에서 원재료·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,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, 주요 거래선(고객사)의 요구 등임.

- 현지에서 조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·기계는 현지에 적합한 원재료·부품이 없다는 점과, 섬유·의류는 주요 거래처의 지정이나 요청으로 인해 대체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음.

● 전기전자와 자동차·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아세안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,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도 큰 목적임.

-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 섬유·의류는 OEM(주문자 상표부착) 생산방식 및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로 인해 미국과 EU로 수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.
- 한국기업의 제품판매는 주요 고객이나 관계사 및 협력업체와 많이 거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, 이는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, 특정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,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.

●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은 △현지 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△물류인프라 부족 △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△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△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 있음.

- 현지 기업과의 GVC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노력(경쟁력 보유, 안정된 품질 및 관리 능력 보유, 현지 거래선 발굴 노력, 현지 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, 종업원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 등)과 함께 현지 기업의 노력(종업원의 기술력 및 질 향상, 적합한 원재료·부품 생산, 생산 안정성 및 납기 준수, 현지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)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

②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

● 자동차 및 전자 업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중심의 사례조사방식으로 분석한 결과,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의 주요 특징은 먼저 인도의 자동차와 전자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조달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임.

- 현지 생산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원재료·부품 조달 비중이 매우 높음.

- 전자의 경우 인도 내 생산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원재료·부품 조달의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.
- 한국기업의 판매구조는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특성상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이 상당히 크나, 자동차 업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.
  - 반면 전자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은 시작단계에 있음. ㄱ
- 한국기업은 △인도 현지 기업과의 협업의 어려움 △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△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.
  -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재료·부품 조달처 및 판매처 정보 제공, 서비스 연결비용 절감(현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충) 등과 관련한 한국정부와 인도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.

## 5)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정책

### ①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

- 원재료·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 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 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가 활발함.
  -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와 기계,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
    - 이는 진출 역사가 오래되었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,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(Anchor Company)과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임.
  - 특히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글로벌 사업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·확대를 계기로 'Thai plus One' 전략에 따라 생산거점을 재구축
    - 'Thai plus One'은 태국을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범용 및 모듈 제품 위주의 단순 임가공 제품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의미
-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 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더 높음.
  - 현지 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배경

표 6. 한국과 일본 기업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비교: 원재료·부품 조달

구분	한국기업(전체, 최근 3년)	일본기업(제조업, 최근 5년)
현지 조달 비중	- 전체적으로는 30%대 중반이나 최근 감소추세 -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고 다음은 베트남, 필리핀 순	- 전체적으로는 46% 정도로 가장 많으나 축소 경향 - 태국이 가장 높고 인도, 인도네시아, 베트남 순
본국으로부터 조달	- 전체적으로 40% 정도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모든 국가에서 증가추세	- 전체적으로는 30% 정도 일본으로부터 수입. 단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급증
현지국 기업 조달	- 전기전자와 섬유·의류는 협력업체와 현지국 기업에서 비슷하게 많이 조달 - 자동차·기계는 협력업체에서 많이 조달	- 현지국 기업 비중이 50% 중반이고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이 30% 후반
배경 또는 원인	- 짧은 진출 역사(일부 업종 제외) - 현지 협력업체나 한국계 업체가 많지 않음. - 신남방지역에 제대로 된 생산거점 또는 지역생산네트워크(RPN) 구축사례 없음.	- 오랜 진출 역사 - 많은 현지 협력업체 및 관련 일본계 기업 분포 - 아세안 주요국, 인도, 중국을 비롯한 주요 지역별로 생산거점 및 RPN 구축
대표 업종	- 베트남 진출 전기전자와 섬유·의류(RPN 구축 시작단계) - 인도 진출 자동차	- 많은 업종에서 구축 - 특히 전기·전자, 기계, 자동차 분야에서 활성화
업종별 특성	- 베트남 진출 전기전자와 자동차·기계는 진출 초기이고 한국·중국으로부터 많이 조달(인도 진출 자동차는 RPN 구축) - 베트남 진출 섬유·의류는 인도네시아보다 RPN 구축 활발	- 전기기계·기구는 현지국보다 일본으로부터 많이 조달 - 화학·의약, 철·비철, 금속, 수송기계·기구는 현지에서의 조달 비중이 높음.
최근 변화 혹은 전망	- 많은 업종에서 현지화 확대 - 전기전자와 자동차·기계 진출 확대기조 - 섬유·의류 업종의 경우 OEM(주문자상표부착) 및 CMT(단순임가공) 방식 위주로 RPN 구축 제한적	- 현지 생산네트워크의 재구축과 세련화 동시 진행 - 제조대행업자 등을 통한 단순화 추구 - Thai plus One 전략

자료: 광성일 외(2016, p. 128)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.

## ②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정책

- **공적개발원조(ODA)를 적극 활용한 경제·사회 인프라 구축, 역내·외 연결성 강화, 산업기반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지원**
  - 양자는 물론 광역 및 다자 개발지원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(service-link cost) 절감과 기업의 입지비교우위 향상은 물론 현지 기업과의 생산네트워크와 GVC 구축에 크게 기여
    - 양자 사업으로 태국의 동부경제회랑(Eastern Economic Corridor), 인도의 델리·뭄바이 산업회랑(DMIC) 등 물류망 구축, 태국의 램차방(Laem Chabang), 베트남의 푸미 3(Phu My3), 인도의 님라나(Neemrana) 등 산업단지 구축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 지원과 함께 세관행정 개선이나 현대화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지원
    - 뿐만 아니라 아시아중합개발계획(CADP), 확대메콩유역경제협력프로그램(GMS Program) 등 광역 및 다자 개발지원을 통해 신남방지역의 물류 인프라를 개선
- **신남방지역 산업협력을 통한 지원**
  - 개도국의 민간분야 발전과 현지 진출 자국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

- 특히 현지국 기업과 일본기업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JICA(일본국제협력기구) 주도로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부문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
- 개도국의 인재양성과 기술이전을 통한 일본기업 진출 지원
- 2003년 일·베트남, 2012년 미얀마·일 등 유망 신흥국과의 공동이니셔티브(Joint Initiative) 설치·운영
- 베트남의 산업구조 고도화, 비즈니스 환경 개선, 물리적 및 제도적 인프라 개선, 인적자원 육성 등을 통해 현지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, 한편으로는 현지 진출 일본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한다는 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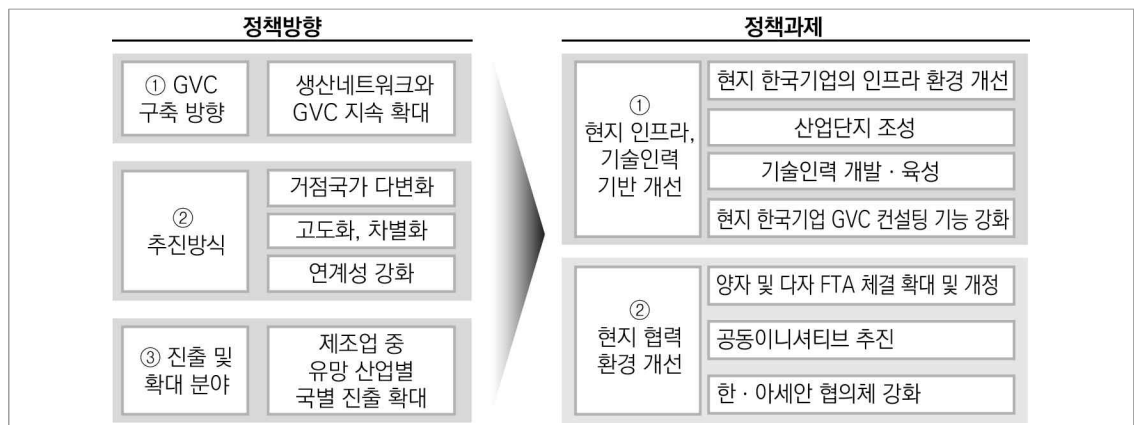
●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및 해결

- 일본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, 일본 국내외 다양한 경로와 기관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, 특히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GVC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에 조사결과를 적극 반영
- 대표적 설문조사로는 경제산업성(METI)의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, 상공조합중앙금고의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대한 의식조사,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주요 지역별 진출 일본계 기업실태조사, 중소기업기반정비 기구의 중소기업 해외사업활동 실태조사,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아시아비즈니스앙케이트 조사 등이 있음.
- 발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루트나 절차로는 공동이니셔티브(JI)와 아세안일본인상공회의소의 소연합회(FJCCIA) 등이 있음.

### 3. 정책 제언

-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세 가지 정책방향과 두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

그림 3.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



## 1) 정책방향

### ① 방향: 신남방지역에서의 생산네트워크와 GVC 확대

- 신남방지역은 무역, 투자, 가치사슬 측면에서 주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바, 신남방지역으로의 생산네트워크 확대를 통하여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.
  - 현지 생산을 위해 한국의 중간재,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.
- 또한 신남방지역에서의 생산네트워크와 GVC 확대는 신남방지역과의 무역불균형을 완화시켜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도 부합됨.

### ② 추진방식: 거점국가 다변화, 고도화 및 차별화, 연계성 강화

-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, 인도네시아, 태국 등으로 다변화가 필요
  -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거점은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, 인도, 인도네시아, 태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한국도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, 인도네시아, 태국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.
    -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, 또는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인도 등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
- 신남방지역 가치사슬의 고도화와 차별화를 추진
  - 신남방지역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과 중간재 수출입이 증가하는 등 GVC 고도화가 이미 진행 중임.
    - 한국의 주된 생산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·베트남의 생산분업을 전자기기산업 외 화학,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 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, 미얀마 등 인접국가로 이전을 유도
    -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, 석유화학,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,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
- 신남방지역의 역내 가치사슬 생산네트워크와 연계성을 적극 활용
  - 신남방지역은 아세안·인도 FTA, 아세안경제공동체(AEC), 아세안연계성종합계획(MPAC 2025) 등 역내 생산요소(상품·서비스·자본·숙련인력) 이동 자유화 및 물리적·제도적·인적 연계성이 점차 강화됨.

-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 발효 시 역내 국가간 가치사슬 이용 비중과 연계가 증가하고, 한국의 가치사슬 중점 협력국인 중국, 베트남, 일본 이외에 새로운 아세안 국가와의 가치사슬 연계 증가 가능성도 높아짐.
- 신남방지역 내 한국·아세안(베트남과 인도네시아)·인도로 연결하는 3각 구도의 GVC를 구축하거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
  - 자동차의 경우 인도·인도네시아·베트남, 전기전자의 경우 인도·베트남·인도네시아(필리핀), 섬유·의류의 경우 인도네시아·베트남·미얀마 연계를 고려
- 수출 및 투자 시 신남방지역의 역내 연계성을 활용하는 것은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음.

③ 진출 및 확대 분야: 한국의 강점과 현지 유망산업이 결합된 분야에 집중

- 한국의 비교우위,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,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유망 협력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필요
  - 한국은 주요국 대비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석유정제, 화학, 전자부품, 자동차 운송장비 등이거나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별로 유망한 산업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(표 7 참고).

표 7. GVC 관련 정책과 산업별 수요에 기초한 유망 협력산업

구분	인도네시아	말레이시아	미얀마	필리핀	태국	베트남	인도
식음료 가공	○	○	○	○	○	○	○
섬유						○	
의류			○			○	
가죽 및 가죽제품						○	
목재 및 목제품						○	
코크스, 석유정제제품	○	○			○		○
화학 및 화학제품	○			○	○		○
제약							○
고무 및 플라스틱					○		
비금속광물		○				○	
기초금속	○					○	○
금속가공	○	○					
컴퓨터, 전자, 광학기기		○	○	○		○	
자동차, 트레일러	○						○
기타 운송장비	○						○
건설 및 건축 자재			○	○			

주: 음영 네모는 부가가치 현지비교우위 및 가치사슬에 기초한 잠재 협력기회와 공통적인 산업을 의미.  
 자료: 저자 작성.



## 2) 정책과제

### ① 현지 인프라, 산업단지, 기술인력 육성, GVC 컨설팅 기능 강화

#### ● 신남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요인을 개선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임.

- 현지 인프라 및 산업단지 투자,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서 우선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
  - 현지 진출기업은 현지 기업의 품질 경쟁력·기술력·물류 인프라 부족, 부품·다양성 부족,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,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.
  - 일본에 비해 공적 개발금융이 열세인 한국은 현지국의 산업구조 고도화, 산업단지 개발로 대변되는 산업기반 조성, 인적자원 개발 등에 집중지원할 필요
  -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, 한국 내 신남방지역 출신 유학생 등을 활용한 해외인적자원 개발을 강화

#### ● KOTRA,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

- 신남방지역 진출기업의 경우 다른 국가나 현지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으므로, GVC 재구축에 대한 컨설팅의 필요성이 증대됨.

### ② 현지 협력환경 개선: FTA 체결 확대 및 개정, 공동이니셔티브 추진, 한·아세안 협의회 강화

#### ●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,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- 한국은 현재 한·아세안, 한·인도, 한·싱가포르, 한·베트남, 한·인도네시아 FTA를 체결한 가운데 한·필리핀, 한·말레이시아, 한·캄보디아 FTA 체결을 추진 중
- 상대적으로 타국 대비 양허수준이 낮은 한·아세안 FTA, 한·인도 CEPA 등의 개정작업도 필요함.

#### ●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

- GVC 구축 지원, 비즈니스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요구 등을 위해 베트남과 인도를 비롯한 신남방지역 내 핵심국가와의 공동이니셔티브(JI)를 개설할 필요
- 또한 비즈니스 애로사항과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고, 이를 토대로 아세안 측에 개선사항이나 해결 방안을 요구하기 위한 한·아세안 협의회 역할도 강화
  - 2018년 개설한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(AAKC)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 **KIEP**